

論介精神 繼承을 위한 長水郡 討論會

논개정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 일시: 1999. 11. 29(월) 오후3시
- 장소: 장수군민회관 대강당

- 발제1 : 논개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 동 주 (작가)
- 발제2 : 논개정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오 병 무 (순천대 교수)

주최 : 장수문화원 전북일보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관 : (주)문화예술기획 **개마**

문의 : (0656)350-2224 (02)736-6818

불멸의 민족혼 아! 논개

임진왜란의 국난을 당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갓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애국충절 정신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논개님의 거룩한 정신은 님이 가신 지 사백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다가올 것인가.

출생사료의 사찬 논쟁으로부터 부인이나, 기생이나, 껴안고 죽은 왜장의 이름의 문제, 축석루의 향연에 대한 이견 등 소모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논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이제는 오직 안으로는 남편의 원수를 갚고 밖으로는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산화하신 님의 정신만을 생각하며, 민족의 가슴 속에 절의와 충열, 호국정신을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통해서 이를 불멸의 민족혼으로 승화시키는 준비를 우리는 착실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주와 장수를 오가며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분과 발제하신 분, 또한 토론을 준비하시느라 동부서주했던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한 논개님의 거룩한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전 국민의 정신적 표상으로 정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1999. 11. 29

장수문화원장 김진영

논개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 동 주 (작가)

1. 논개의 순국사실에 대한 논쟁, 사실확인에 대하여
 - ① 「경종실록」 원년(1721년) 2월 을미조
 - ② 「경종실록」 2년(1722년) 11월 기해조
2. 논개의 출신지, 가문에 대하여
 - ① 「충렬실록」 권1. 신보비변사문(1721년)
 - ② 「충렬실록」 권1. 비변사재관문(1721년)
 - ③ 「충렬실록」 권1. 변보비변사문(1722년)
3. 유몽인 「어우야담」 - 진주관기논개전 -에 대하여
4. “3”에 대한 英祖의 공식적인 부정에 대하여
「충렬실록」 권1. 批附.
5. 논개의 나이를 추정하는 문헌에 대하여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詩文集. 진주의기사기
6. 논개의 신분에 대하여
「壬辰錄」. 閔順之 (1632년경) (東京大 도서관 소장)
7. 논개와 최경희의 관계에 대하여
 - ① 「경상우병사증좌찬성최공시장(諡狀)」 (1751년)
:權檣(1675-1755)
 - ② 命忠毅公崔慶會 特施不祧文典에 따른
「純祖賜祭文一御製四回甲癸巳一(1833년)
 - ③ 「승정원일기」 영조26년 3월25일(무진조)(1750년)
 - ④ 「영조실록」 권71. 영조26년 3월(무진조)(1750년)
8. 논개 관련 문헌 연구 방법에 대한 반성

논개 정신(論介精神) 어떻게 계승(繼承)할 것인가?

오 병 무(吳炳武)

(順天大學校 教授, 哲學博士)

[I]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差別)을 받아서는 않된다. 그러나 태어난 뒤 그 사회의 제도에 따라 신분(身分)을 구별하기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신분이 미천하든 존귀하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있다. 우리 나라 역사적인 인물(人物) 가운데에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불분명(不分明)한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논개(論介)이다. 논개는 역사적으로 실존(實存)했던 인물로 우리 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業績)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 주신 부모와 출생지와 성장지 곧 그녀의 생애(生涯)에 관한 기록들이 불분명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論難)거리를 제공(提供)케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논개의 생애(生涯)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서 《어우야담(於于野談)》이다. 그런데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헌 설화(文獻說話)에 지나지 않는다.¹⁾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 논개의 생애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다고 하겠다. 즉 논개의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출생과 이름·출생지와 성장지·신분 등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바 다름이 많이 있으며, 이 이설들 때문에 야기(惹起)되었던 또다른 이설들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논개의 생애에 관하여 일관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1)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 당시 여러 지방의 민간(民間)에 흩어져 구전(口傳)되던 것을 채록(採錄)하여 만든 것이다. 이 《어우야담》 권일(卷一) 인륜편(人倫篇) 효열(孝烈) 조(條)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야담(野談)과 설화(說話) 형식(形式)으로 기술(記述)하였다.

앞의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1900년 이전까지 간행(刊行)되었거나 필사본(筆寫本)으로 이루어진 문헌들과 그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논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어우야담(於于野談)》이다. 《어우야담》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筆寫本)이다. 한글본과 한문본(漢文本) 두 종류가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譯者)와 연대(年代)는 불분명하다. 이 《어우야담》은 현재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어우야담》 필사본은 ‘장서각본(藏書閣本)’ ‘연세대본(延世大本)’ ‘천리대본(天理大本)’ ‘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文章上)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이 《어우야담》은 광해군(光海君) 13년(1621)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²⁾이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 야담(野談)과 설화(說話)를 모아 저술한 것이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 류몽인의 《어우야담》 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그 내용은,

논개(論介)는 진주(晉州)의 관기(官妓)였다. 계사년(癸巳年)³⁾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晉州城)에 들어가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

2) 유몽인은 명종(明宗) 14년(1559) 사간(司諫) 충관(忠寬)의 손자이자 당(堂)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당(於于堂)·간재(良齋)·묵호자(默好子)이며,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그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門人)으로 선조(宣祖) 15년(1582) 진사(進士)가 된 뒤 158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문장에 뛰어났으나 성품이 경박(輕薄)하여 스승의 책망을 받고 절교(絶交)를 당하자 이이첨(李爾瞻) 등 당시 대북파(大北派)와 교류하면서 중북(中北)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우계 성혼이 죽자 스승을 모독하는 글을 써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폐모론(廢母論) 때 이이첨과 대립, 이에 가담치 않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화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유응시(柳應時)의 고변(告變)으로 기자헌(奇自獻)·유경종(柳敬宗) 등이 반란을 일으킨 이괄(李适)과 내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하려 하자 양주(楊州)의 서산(西山)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이원익(李元翼)·김상헌(金尙憲) 등의 문초에 모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지은 ‘상부사(孀婦詞)’에서 인조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아들 약(淪)과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조선 중기의 설화문학(說話文學)의 대가였으며 전서·예서·해서·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정조 때에 이르러 신원(伸冤)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추증되었고 흥양의 운곡사(雲谷祠)와 완주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어우야담(於于野談)》·《어우집(於于集)》이 전해오고 있다.

3)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단장을 곱게하고 축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 그녀를 피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열(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論介者晉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觀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巔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污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歎哀哉.)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앞 부분 ‘논개는’부터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까지는 논개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고, 뒷 부분 ‘임진왜란 때’부터 ‘참의로 애달픈 일이다.’까지는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어우당 유몽인 나름의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평가라 하겠다. 우선 앞의 기록에서 ‘논개’는 진주의 관기(官妓)였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관기로서 왜적(倭賊)에게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논개는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어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게 되자 나라와 백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장(丹粧)한 뒤 남강(南江)가의 바위에 앉아 왜적의 장수를 유인하여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관기란 원래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라 하여 정열(貞烈)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몽인이 볼 때 논개는 관기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정열이 있었고 충(忠)을 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관기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일반 사서인(士庶人)들이나 양반의 부녀자들이 행할 수 있는 충과 열을 몸

소 행했다는 것이다. ‘충’이란 원래 ‘충성(忠誠)’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교(儒敎)의 덕목(德目)의 하나로 임금에 대하여 신하와 백성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충’이라는 문자는 ‘중(中)’과 ‘심(心)’이 합해져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글자가 나타내듯이 인간의 내면적(內面的) 양심(良心)이라 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마음에 의하여 남을 이해하려는 것이 ‘서(恕)’라 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거짓이 없이 말(言語)로 행하려는 것이 곧 ‘신(信)’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기록으로는 논개가 임진왜란 당시 순국(殉國)한 진주성(晉州城) 축석루(矗石樓) 아래 남강변(南江邊)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이라는 전서(篆書) 두 글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져 새겨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유몽인의 《어우집》 가운데 ‘어우선생년보(於于先生年譜)’를 보면, 이 ‘의암’이라는 글씨는 정대용(鄭大隆)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이 사실이라면 ‘의암(義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仁祖) 2년(1624) 1월 이후가 된다. 한편 현재 축석루에 걸려있는 <의암기(義巖記)> 를 보면 이 ‘의암(義巖)’이라 각자(刻字)한 동기가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의암’이라 새겨져 있는 바위는 논개가 왜인(倭人)을 안고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논개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기 위해 후세 사람들이 새기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의암’은 논개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의암이 공식적(公式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논개가 순국한지 32년 뒤의 일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 기록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후세에 알려 주게 된 직접적인 사료(史料)가 되는 최초의 금석문(金石文)이다. 이 <의암기> 는 효종(孝宗) 2년(1651) 당시 간관(諫官) 오두인(吳斗寅)이 쓴 것이다. <의암기> 는 그의 저서인 《양곡집(陽谷集)》에 있는데, 인쇄본이다. 영조(英祖) 22년(1746) 아들 태주(泰周)⁴⁾와 사위 도암(陶巖) 이재(李緯)⁵⁾가 간행하였다. 이 《양

4) 오태주는 현종(顯宗) 9년(1668) 두인(斗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도장(道長)이고, 호는 취몽헌(醉夢軒)이고, 본관은 해주이다. 그는 현종의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결혼하였으며 숙종 5년(1679)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다. 그는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예서(隸書)에 능통하였다. 그는 1689년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아들을 세자(世子, 景宗)로 책봉(冊封)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가 한 때 삭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예에만 열중하였다. 그는 숙종 42년(1716) 죽었다.

5) 이재는 숙종 6년(1680) 진사(進士) 만창(晩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희경(熙卿)이고,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이며, 본관은 우봉(牛峯)이다. 그는 숙종 28년(1702) 알설문과(謁聖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찬집청 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端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봉교(奉敎)로 있으면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 이듬해 홍문관(弘文館)·헌납(獻納)·북

곡집》 권삼(卷三)에도 〈의암기〉가 있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1651) 쓰여진 것이다. 〈의암기〉의 내용은 아마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인용하여 거기다가 흠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좀더 상고(詳考)하여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의암기〉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김해 부사 이모(李宗仁)’ 역시 진주성이 함락되자 양팔에 왜적 한명씩을 끼고 남강(南江)에 투신 숙국하였는데 그 투신처가 바로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던 ‘의암(義巖)’이라는 기록이다. 이같은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없는 것으로 새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해 부사 이종인은 이 때 이미 그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으로부터 인정되어 순국한 그에게 포상(褒賞)이 이루어졌고 충민사(忠愍祠)에 그의 위패가 봉안(奉安)되어 있었다. 오두인은 바로 이 점을 착안하여 이 글을 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도 한 사람(이종인)은 포상이 되고 사당에 위패까지 봉안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논개)은 미천한 관기(官妓)라 하여 그녀의 행적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포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발로된 것이라 하겠다. 그는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으로 증명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일진저!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고 반문한 것이리라.

그 뒤 진주 지역의 지방관들이 논개의 순절에 관한 내용을 소(疏)나 계(啓)로 올린 것이 있다.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戰死)한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시민(金時敏)⁶⁾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⁷⁾

평사(北評事)를 역임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는 노론(老論)의 일원(一員)으로 《가례원류(家禮源流)》 시비가 일어났을 때 서론(少論)을 통박하기도 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중부(仲父) 만성(晩成)이 옥사(獄死)하자 정계에서 은퇴하고 인제(麟蹄)로 들어가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전념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중추적 인물로 등장하였다. ‘심성론(心性論)’에 있어 이간(李柬)의 학설을 지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 당시 낙론(洛論)의 대표적 학자가 되었다. 그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조광조(趙光祖)·이이(李珥)를 사숙(私塾)했으며 《율곡전서(栗谷全書)》를 산정(刪定)하기도 하였다. 그는 서화(書畵)에도 능통하였다. 영조(英祖) 22년(1746) 그는 죽었다. 용인(龍仁)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도암집(陶庵集)》이 전해 오고 있다. 그 밖에 많은 편저가 전해지고 있다.

등 27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순조(純祖) 31년(1831) 정덕선(鄭德善) 등이 편찬 간행하였다.

《충렬실록》 권이(卷二), 〈비변사장(備邊司狀)〉 8)의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진주 사인(士人)들이 전진주(前晉州) 별장(別將) 윤상보(尹商輔)에게 장문(長文)을 우병영(右兵營)에 올리도록 권유하였는데 그 때 그 권유를 받아드려 윤상보가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이 인용하여 경종 2년(1722) 2월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를 올린 바 있다. 이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를 보면,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방도(方道)를 통하여 찾아 보았으나 그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어우야담》의 내용 가운데에서 논개의 순국 사실을 찾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진한은 《어우야담》의 내용과 ‘의암’이라 새겨진 전각(篆刻)을 대조(對照)해 보고

6) 김시민은 명종(明宗) 9년(1554) 지평(持平) 충갑(忠甲)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면오(勉吾)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선조 11년(1578)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이 되었을 때 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건의한 바 채택되지 않자 관직을 그만 두었다. 1591년 진주 판관(晉州判官)이 되었으며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죽은 목사(牧使)를 대신하여 진주성의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무기(武器)를 갖추어 목사로 승진하였다. 이어 사천(泗川)·고성(固城)·진해(鎭海) 등지에서 적을 격파하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 올라 금산(錦山)에서 다시 적을 격파하였다. 이 해 10월 적의 대군이 진주성(晉州城)을 포위하자 불과 3천8백의 병력으로 7일간의 공방전을 벌려 3만여의 사상자를 내게 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이마에 적탄을 맞은 채 죽었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추록되고 상락군(上洛君)이 봉해졌으며 뒤에 영의정·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이 추증되었다.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7) 최경희는 중종 27년(1532) 천부(天符)의 아들로 능주(綾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선우(善遇)이고, 호는 삼계(三溪)·일휴당(日休堂)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명종 16년(1561) 진사시에 합격하고 선조 즉위(1567) 식년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영해군수(寧海郡守)·장수현감(長水縣監) 등을 역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전라우도(全羅右道)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금산(錦山)·무주(茂朱)·창원(昌原)·성주(星州) 등지에서 왜적을 격퇴 전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이듬해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승진하였으며 이 해 6월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9주야(晝夜)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뒤에 좌찬성(左贊成)이 추증되었으며 능주의 포충사(褒忠祠)·진주의 창렬사(彰烈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8) 비변사장(備邊司狀)이란 비변사에 올린 장계(狀啓)를 말한다. 비변사는 조선 시대 관청의 하나로 일명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라고도 하였다. 비변사가 정규(正規)의 관청(官廳)이 되어 독자적(獨自的)인 합의 기관(合議機關)이 된 것은 명종(明宗) 9년(1554)이다. 비변사의 권한(權限)이 강화(強化)된 것은 임진(壬辰)·정유왜란(丁酉倭亂) 이후인데 변경(邊境)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행정(一般行政)도 모두 이 곳에서 의논(議論)하여 결정(決定)하게 되었다.

비교도 해 보았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논개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 허람(虛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논개가 비록 처음에는 창기(娼妓)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마침내에는 의(義)를 위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정(朝廷)의 아무런 조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 조정으로부터 마땅한 포이지례(褒異之禮)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최진한의 주장이다.

이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개의 포양(褒揚)을 경종(景宗)에게 계문(啓聞)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마침내 예조(禮曹)로 하여금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한 뒤 시행토록 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관문(關門)¹⁰⁾을 보내게 되었다. 이 관문에 의하면,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정(朝廷)에서 미력(微力)하나마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확신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적으로 그녀의 순국 사실을 논의하기 어려운 까닭에 더 조사하여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관문을 보냈던 것이다. 이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최진한은 진주의 사인(士人)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나머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종 2년 4월 민관(民官)이 함께 재정을 출자하고 정식(鄭栻, 1683-1746)이 비문을 짓게 되었는데 이 때 건립하게 된 비(碑)가 곧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문에는 《어우야담》의 논개 순국 사실을 전제한 뒤 ‘이 내용은 당시의 실록(實錄 : 《어우야담》에서 나왔으므로 지금 비문을 새김에 있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대로 비에 옮겨 새긴다.’고 되어 있다. ‘의암사적비’를 건립한 우병사 최진한은 그 뒤 다시 비변사에 신보(申報)¹¹⁾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때도 논개의 사적에 관한 기록이 관청의 문적 가운데에는 찾아 볼 길이 전혀 없었지만 ‘의암’이라 새겨놓은 바위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비문이 곧 논개의 의거(義擧)를 증빙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암(義巖)’이라 바위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는 논개가 순국한 뒤 영남 사람들에게 의해 ‘의암’이라는 말만이 전해 오게 되었는데 몇 몇 선비들이 논개의 의거 사실을 애석하게 여겨 새겨놓은 것이라 한다. 그 뒤 논개가 순국한지 백여년이 지나 자손도 없고 족속도 없어 그녀의 사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의암 위에다 비석 하나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비문의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9) ‘계문(啓聞)’이란 관찰사(觀察使)나 어사(御使)가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말함.

10) ‘관문(關文)’이란 상급(上級)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公文)을 가리킴.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11) ‘신보(申報)’란 하급자(下級者)가 상관(上官)에게 보고(報告)하는 것을 말함.

‘의암’이라 새겨진 바위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보는 바이고, 《어우야담》은 옛 사람들의 공의(公議)에 따른 것이니 논개의 의거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이 두 가지 내용보다 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논개의 의거 사실을 인정 포이지전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앞의 최진한의 신보(申報)를 받아 본 비변사에서는 다시 최진한에게 재관문(再關文)을 보낸다. 이 재관문에 의하면, 그동안 조정에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최진한의 신보로 말미암아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논개의 순국에 관해 논의한 바 그녀의 자손을 찾아 그들에게 급복(給復)과 포이지전을 베풀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 재관문을 받은 최진한은 비변사에 연보(連報)¹²⁾를 한다. 이 연보에 의하면, 논개에 관한 칭호(稱號)가 관기에서 ‘의기(義妓)’로 바뀌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의기 논개의 자손을 찾기 위해 해당 관청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토록 하였으나 논개는 원래 자손이 없었고 그녀와 관계가 있는 족속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의 관문이 경상우병사의 관할지로 보냈는지 아니면 논개가 태어나 성장한 곳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논개의 자손이나 족속을 찾아본 즉 아무도 없었기에 급복의 특전을 베풀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이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 뒤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청증직소(請贈職疏)’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논개에게 증직(贈職)해 줄 것을 임금에게 직접 청원하는 소장(疏章)의 일부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표하는 상장을 내려 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마침내에는 임금에게 직접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내용과 그녀에게 증직할 것을 청원하는 소(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英祖) 16년(1740) 마침내 논개에게 ‘의기(義妓)의 정포(旌褒)’가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正祖) 22년(1798) 우병사 안숙(安榘)이 작성한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의 내용 가운데 ‘영조(英祖) 16년(1740)에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게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1740)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에 대한 ‘관기(官妓)’라는 표현이 아닌 ‘의기(義妓)’로서의 정포를 윤허(允許)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집약하여 <의기전(義妓傳)>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기전>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

12) ‘연보(連報)’란 이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함.

(1739)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의암 위에서 논개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개의 순국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춤을 추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구체화 내지는 사실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성품을 적게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내용에서는 당시의 선비들의 생활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당시의 선비들은 “아! 선비들은 독서를 통해 의리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배회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여 선비들은 평소 의리를 배우고 익혀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면서도 사변이 일어나니 결연치 못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한 두 예가 아니라 한다.

논개는 무지(無知)하고 미천한 창기(娼妓)였지만 “사직을 걱정하고 강상을 부지하였다. 미소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 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설픈 선비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의리를 배우지도 않았고 평소에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하지도 않았지만 국가와 백성의 안위(安危)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있을 때 사직(社稷)¹³⁾을 걱정하였고 강상(綱常)¹⁴⁾을 부지(扶持)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한 삶과 죽음이 아닐 것인가? 마침내 그녀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왜적의 우두머리 곧 장수(將帥)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의 수백년의 근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논개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에 의한 순국은 당시 왜적의 침략을 당해 패잔의 상처와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조선(朝鮮)의 백성들과 군사(軍士)들에게 사

13) ‘사직(社稷)’이란 원래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사(祭祀)를 말하였으나 뒤에 의미가 바뀌어 국가(國家)로 쓰이게 되었다. ‘사(社)’는 토지(土地)의 정령(精靈), ‘직(稷)’은 곡신(穀神)으로 구별하나 합하여 토지의 신이라 보기도 하며 왕조(王朝)의 시조(始祖)를 제사 지내는데서 비롯되었다.

14) ‘강상(綱常)’이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도덕(道德)이다. 삼강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리요, 오상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가리킨다.

기를 북돋아 주었고, 영남과 호남에 수백년동안 유지되어온 근기(根基)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개의 순국 결과에 대하여 ‘앞 옛 역사에 일찌기 있었던가? 참으로 논개의 순국은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나야 할 것이 아닌가?’고 박태무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 진주성 경내에 의기사(義妓祠)가 창건되었는데, 정약용(丁若鏞)¹⁵⁾이 <진주 의기사기(晉州義妓祠記)> 를 지은 것은 1780년 이후로 추정된다. 의기사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1780)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1726-1791)가 보수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丈人)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의기사기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의 의리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과 ‘충의’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논개’라는 말이 없고 ‘기(妓) 의낭(義娘)’이라 표현하고 있다. ‘기(妓)’는 기생을 가리키며 ‘의낭(義娘)’은 ‘의로운 낭자’를 가리킨다. ‘낭자’란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 곧 처녀를 말한다. 만약 ‘기(妓) 의낭(義娘)’이 ‘논개’를 가리킨다면 이 때의 논개는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 기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앞에서는 ‘기(妓) 의낭(義娘)’이라 기록해 놓고 뒤에서는 그녀를 ‘현부인(賢婦人)’이라 기록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15)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晉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教) 교명(敎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 해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蘖)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1800년대에 들어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 만들어졌다. 《호남절의록》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即位年, 1800) 간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일하(卷之一下, 33面),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 뒷 부분에 논개에 관한 내용이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이는 최경희와 논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된다. 한 가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진주(晉州)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는 논개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위 기록에서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경희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기록이다.

그런데 《호남절의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수단 유사(收單有司)’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각 집안을 방문 조사케 한 뒤 그 조사된 내용을 참고로 하였던 것이다. 《호남절의록》,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의 뒷 부분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은 논개의 후손이나 아니면 족속이 말해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최경희의 후손에 의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최경희의 후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단 유사에게 최경희가 논개를 좋아하였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분명히 최경희의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경희가 논개를 사랑하게 된 시기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재임하고 있던 때였는지 아니면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였던 때인지는 알 수 없다.

그 뒤 이 《호남절의록》을 바탕으로 하여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삼강록》은 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종(憲宗) 5년(1839) 간행되었다. 이 《호남삼강록》은 《호남절의록》보다 39년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호남삼강록》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조(論介條)를 보면, 《호남절의록》의 논개에 관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는 달리 논개조를 따로 분리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개가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라 하였으며, 진주 병사(晉州兵使) 최경희(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논개가 장수의 관기였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이다’고 하여 그녀가 곧 ‘장수 사람이다.’라든가 아니면 ‘그녀가 장수 태생이다.’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뒷날 편집 간행되는 최경희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개조의 기록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즉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 정려가 장수 본현 어디에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져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되기 전까지 이 곳 장수 지역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금석문이 세워졌다는 문헌적 기록이나 세워진 금석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남삼강록》의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라는 기록은 오기(誤記)이거나 수단 유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경희의 《일휴당실기》는 철종(哲宗) 12년(1861) 간행되었는데 이는 《호남삼강록》보다 22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실기의 창의서록(倡義敍錄)을 보면, 바로 앞의 기록과 《호남삼강록》의 논개조에 영향을 받은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즉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쥔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시첩(侍妾)이던 논개 역시 왜적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長水)의 기녀(妓女)였다.’였다는 것이다.

논개가 생장했다고 전해지는 장수에 처음으로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鄉豎名碑)’가 세워졌다.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는 헌종(憲宗) 12년 서기 1846년 논개의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해 장수현(長水縣)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장수 현감(長水縣監) 정주석(鄭胄錫)이 비문을 지었다. 그 비문은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된 7년 뒤 새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 비문은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이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의 내용과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 비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논개의 인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이긴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당시 정주석은 장수 군수로 부임한 뒤 이 지역 사람들로 부터 전해 들은 바 논개가 국난(國難)을 당하여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절개(節概)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烈士)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갓 여자의 몸으로 대의(大義)를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겨 순국하였다는 사실과 그렇게 순국한 논개의 충열에 대하여 삼가 옷깃을 여미게 되었고, 그녀를 공경(恭敬)하는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이 감동하고 감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나머지 정주석은 논개가 순국할 당시를 회고해 보았는데 그녀의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述懷)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주석은 그녀의 정신을 따르기를 스스로 원(願)하였기에 삼가 글로 그 내용을 적어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주석의 말에서 논개의 타고난 성품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논개의 순절에 관한 기록이 《호남읍지(湖南邑誌)》에 게재된다. 《호남읍지》는 12책으로 되어 있는데 고종(高宗) 9년(1872)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읍지》 가운데 장수 현조(長水縣條), 절의편(節義篇)에는 논개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논개는 의(義)로운 기생

곧 의기(義妓)로 표현되어 있다. 논개가 다른 기록에서 처럼 ‘관기’라든가 ‘진주 기생’이라든가 ‘장수 기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만 ‘의기’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이 장수(長水)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이다.’고 밝히고 있다. 곧 그녀의 고향이 ‘장수의 임현내면 풍천’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록들은 그녀의 고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장수 사람이다.’는 정도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면(面)과 마을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충의공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는 내용 역시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경희가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즉 ‘장수 현감’이라는 직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최경희가 진주 병사(晉州兵使)가 되어 진주성(晉州城)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도 최경희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논개의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하겠다. 즉 논개가 진주성으로 간 것은 최경희가 진주 병사가 되어 진주성으로 가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다. 이같은 기록은 최경희의 《일휴당실기》의 영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청구야담(靑邱野談)》에 논개에 관한 내용이 있다. 《청구야담》의 작자와 만들어진 년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하건대, 조선 말기(末期)로 보인다. 20권으로 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이다. 이 《청구야담》 가운데 ‘진양성의기사생(晉陽城義妓捨生)’이라는 제목 아래 논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작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이미 앞의 유몽인의 《어우야담》 가운데 논개의 순국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熟知)하고 있었으며, 그 숙지하고 있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에다가 자신이 또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좀더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즉 유몽인의 《어우야담》 가운데에는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의 이야기가 없으나 이 글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진주성이 함락되어 성안에 있던 6만여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새로 언급되고 있다. 또 논개가 왜(倭)를 끌어 안고 강물에 함께 죽었다고 《어우야담》에는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왜적의 장수(倭將)’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Ⅲ]

그동안 여러 문헌과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던 논개의 성씨·본관·이름·생년월일·출생지·성장지·신분에 관하여 그녀의 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논의된 것이 거의 없다. 논개에 관하여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자 논개의 실존(實存)을 기록으로 알려주었던 것은 어우당 유

몽인의 저술인 《어우야담(於于野談)》인데 이 역시 어떤 확실한 근거 자료에 의해 저술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어우야담》이 편찬되기 전 유몽인은 순무사(巡撫使)가 되어 당시 경상도 일대를 순시(巡視)한 바 있었는데 그 때 진주(晉州) 지역에 들러 그동안 향간(巷間)에 떠돌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였다가 뒤에 그 수집된 내용을 정리하여 《어우야담》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어우야담》이 필사본으로 편찬된 것은 논개가 순국(殉國, 1593)한지 28년이 지난 1621년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개에 관한 내용들은 대개 《어우야담》에 수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그동안 민간에 구전(口傳)되어오던 논개에 관한 내용을 수집 확대하거나 재해석(再解釋)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논개의 성씨·본관·이름·생년월일·출생지·성장지·신분에 관하여 그녀의 가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최근에 이르러 논개의 가계(家系)에 관한 어떤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논개의 성씨는 ‘신안주씨(新安朱氏)’, ‘그녀의 아버지는 주달문(朱達文)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朴氏)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립(定立)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개의 생년월일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앞 부분 생략) 배호길은 논개가 선조 7년(1574)인 갑술년의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사주가 사갑술이므로 술 戌이라서 ‘논개’라 명명했다는 것이다.¹⁶⁾ 정비석도 논개가 갑술년 9월 3일 갑술시생 곧 사주가 사갑술이며¹⁷⁾, 전병순도 정비석과 같이 보고 있다.

하지만 논개란 이름과 꼭 같은 이름이 그녀가 살았던 당시의 문적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이름은 허다하게 많다. 그 한 예로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살펴보면, ‘論介 礪山郡人 良人曹忠良之女也’고 한 것은 의기 논개와 동일한 이름이다. 이 밖에 良女 덕개(德介, 淸州人), 양녀 옥개, 양녀 인개, 양녀 석을배, 양녀 구토개, 양녀 흥개, 양녀 금개와 사비(私婢) 막개(莫介), 사비 춘개, 사지 막개, 사비 건이개, 사비 수령 및 신분이 명시되지 않은 충신 자근개, 옥개 등 논개와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¹⁸⁾

16) 배호길, 〈진주 축석루와 주논개〉 《한양(漢陽)》, 1965년 3월호. 내용 참조.

17) 정비석, 《명기열전(名妓列傳)》, 제14화 진주기논개(晉州妓論介)(한국출판공사, 1982) 내용 참조.

18)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p. 6-7. 내용 참조.

(앞 부분 생략) 1861년에 간행되었던 《일휴당실기》에서는 1577년에서 1579년까지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재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호남읍지》(제5책 〈무장읍지〉 官案條)의 1579년 3월 장수에서 무장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경희의 장수 부임은 1579년 이전으로 보아야 합당하다. 그런데 현전하는 구전을 체계화한 배호길은 1590년 최경희가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부실로 맞아들였으며, 1591년 경상우병사가 되자 진주로 함께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논개의 나이, 논개와 최경희를 연결시켜 주는 송사 사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경희의 장수 현감 재임 시기를 맞추고 있다. 그 후 《장수군지》를 비롯한 지역사는 1589년을 최경희 장수 현감 부임을 정설화하고 있다.

최경희와 관련을 가지고 연구된 기존의 논문¹⁹⁾에서는 최경희가 장수 현감 시절 논개와 인연을 맺는 것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다. 그것은 논개의 출생 연도를 대부분 1574년으로 인정한 위에 최경희의 장수 부임과 연결시킬 때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최경희의 장수 부임 시기는 1579년 장수에서 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1579년 이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157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논개의 나이는 너무 어려서 논개와 최경희와의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필자 또한 최경희의 장수 현감 부임은 1579년 경으로 보이며 1589년 부임 설은 수긍하기 힘들다.²⁰⁾

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의 출생년월일(사갑술)과 최경희와의 관계에서 볼 때 논개의 출생년월일인 4갑술설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개의 출생년월일이 4갑술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갑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논개’라는 이름과 최경희와 논개의 관계에 관하여도 앞으로 고찰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관해서는 지금의 ‘전라북도(全羅北道) 장수군(長水郡) 장계면(長溪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이었다는 내용으로 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언(附言)해 둘 것은 ‘주촌(朱村)’이라는 지명과 ‘풍천(楓川)’이라는 지명이 동일한 마을에 대하여 그렇게 불렀던 서로 다른 이름인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지명이 서로 다른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이라면

19) 리명길, 〈의기 논개의 사적 고찰〉 《진주문화(晉州文化)》 제14집, (1992, 진주), 유승주(柳承宙), 〈진주성(晉州城)의 의기(義妓) 논개고(論介考)〉 《한국사학논총(韓國史學論叢)》, (1987), p. 909.

20)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p. 204-205.

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논개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현재 '주혁(朱爍)'과 '주용일(朱溶一)'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일인동명(一人同名)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끝으로 그녀의 신분에 관한 것인데 그녀는 분명 처음에는 양가 출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한 뒤 무슨 사연으로 말미암아 기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바 '관기'·'의기'·'기생'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축석루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 물에 뛰어들어 순국할 때는 분명 기생의 신분이었음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²¹⁾이 쓴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보면,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던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21)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晋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教) 교명(教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 해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蘖)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구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 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忠臣(충신)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²²⁾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축석루 위에 써 붙인다.(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矧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晉州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恚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眇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 曠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缺 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矗石樓上.²³⁾)

이 기록에서 정약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의 의리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22)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란 ‘홍화보(洪和輔)’를 가리킨다.

23)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바로 정약용의 이 글에서 논개의 신분이 무엇이었던가는 중요시 되지 않는다.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약용의 바로 이 말처럼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었던 양녀였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역사(歷史)란 것은 변화라는 것을 무시하고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인간할 것 없이 모든 것은 항상 갱신(更新)하고 발전하며 또 붕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단(不斷)한 변화는 단순히 양적(量的) 변화와 같은 직선적(直線的)인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과정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과거의 반복도 아니라 하겠다. 역사의 변화는 낡은 질적(質的) 상태(狀態)에서 새로운 질적 상태(狀態)로,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사는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서술(敘述)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계의 현상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역사적 과거는 인간의 정신의 활동으로 재생(再生)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